

1등 기업도 떠나는 코스닥… 특하면 횡령·배임에 신뢰 ‘뚝’

W 천스닥

② 자본 먹튀

지금 조달 이유로 대장주들 떠나
횡령·배임 27건… 신뢰 제고 우선
부실기업 퇴출 등 시장 본질 개선을

#.직장인 홍모(43)씨는 이달 초부터 주식 일부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2년 전에 만 든 3000만원짜리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을 갚기 위해서다. 자동차 구입 비용에 보태려고 마통을 열었지만, 빌린 돈의 대부분은 코스닥 주식 투자에 썼다. 홍씨는 “코스닥 시가 총액 1위 기업도 떠나는데 지수가 오르겠느냐”며 “지금 아니면 기회는 없을 것 같아 마통부터 정리했다”고 했다.

코스닥 1등 기업인 알테오젠이 유가증권시장(코스피)으로 이사갈 예정이다. 과거에도 카카오(2017년)와 셀트리온(2018년) 등 큰 기업들이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옮겨간 전례가 있다. 하지만 코스닥이 1000을 넘어선 상황이라 시장을 바라보는 개미들의 시선은 불안하다. 기업 입장에서는 코스피로 이동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보다 큰 자금 유입으로 주가가 오를 뿐만 아니라, 변동성이 적어 주가 관리도 손쉽게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한국판 나스닥’을 내건 코스닥 알짜 기업이 모두 떠난다면 2부 시장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심심찮게 터지는 횡령 배임



ChatGPT로 생성한 ‘코스닥 내 대형 기업이 떠나며 슬퍼하는 개미(개인 투자자)들’ 이미지.

등도 코스닥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

◆코스닥 외면하는 기업들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다. 알테오젠은 유가증권시장 상장 절차를 거쳐 올해 중 코스피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코스닥 기업들의 잇따른 이전상장 배경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코스피에 입성할 경우 패시브 자금(시장 지수를 따라 투자하는 자금)과 외국인 투자자의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국내의 펀드는 벤치마크를 코스피 200으로 두기 때문이다. 시장 한 관계자는 “코스닥은 80%가 개인 자금이고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 유입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코스닥보다 주가 흐름이 안정적인 점도 매력적이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대표적인 자금 조달 수단이 유상증자

인데, 이때 주식을 얼마나 발행할지 정확하게 예측하려면 주가 변동성이 적어야 좋다”며 “안정적인 자금 조달이 기업이 이전상장을 원하는 이유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알테오젠 역시 앞서 코스피 이전 상장 목적에 대해 “안정적 투자 환경 조성을 통한 기업 가치 제고”라고 공시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전상장 소식을 반긴다. 실제로 패시브 자금 유입 등 기대감에 주가가 오르기 때문이다. 다만 발표 직후에는 기대감에 오르지만 이전 상장된 뒤 주가는 펀더멘털(기업의 기초체력)에 따라 회귀하기 때문에 코스피 효과에만 의지해선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반면 ‘코스닥 공동화’와 ‘2부시장 전락’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원은 “코스닥시장대형기업의이전상장은 코스닥시장의 지수성격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드러나, 대형기업의 이전상장은 다른 이전 상장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코스닥 상장기업의 계속되는 이전상장은 코스닥시장의 투자자 기반과 상장 기업 기반을 위축시키고 국내 모험자본 순환체계의 핵심 인프라로서 위상과 기능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투자은행(IB)업계 한 관계자는 “기업들이 꺼리는 코스닥의 변동성과 투기심리를 잠재우려면 소위 ‘코스닥의 물관리’가 중요하다”며 “거래소의 상장과 폐지 등 게이트키퍼링을 기능 강화와 기업공개(IPO) 외에도 출구전략을 마련해줄 세컨더리 시장(상장 전 사모펀드에 매각 등이 이뤄지는 시장) 육성 등 근본적인 시장 성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하면 횡령·배임, 시장에 찬물

삼천리자전거는 사내이사인 김석환 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지난 5일 기소됐다고 공시했다. 김석환 회장의 배임 규모는 약 13억원이다. 아울러 같은 날 삼천리자전거 계열사인 코스닥상장사 참좋은여행도 김석환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을 공시했다. 삼천리는 ‘상장격적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발생)’에 오르면서 거래가 정지됐다. 삼천리자전거 주가는 고점 대비 21.22%하락했다.

기업들의 횡령·배임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닥시장에서 ‘횡령·배임 발생’ 공시 건수는 27건이나 된다.

‘개미’ 투자자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횡령·배임 사건이 보고되면 해당 기업의 주식 거래는 즉시 정지된다. 소액 주주들은 투자금을 꼼짝없이 묶인 채 한국거래소가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인고의 세월을 보내야 한다. 거래소의 심사가 길어지면 주식 매매 정지에 따른 피해는 오롯이 소액 주주들의 몫이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코스닥 내 대형 기업들이 떠나면서 코스피의 2부 리그처럼 여겨지고 있고, 시장의 본질적인 질을 개선해야 한다”며 “불공정 공시, 공시 규정 위반 등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한 확실한 조치를 통해 코스닥 시장에 늘어나고 있는 부실기업을 퇴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인증 수준을 높여 설계·운영의 효과성에 대한 감사를 의무화하더라도 최고경영진의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제도는 허상으로 남는다”고 지적했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150조원 국민성장펀드나 대형 중투사 모험 자본의 무공급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이 핵심으로, 코스닥 상장사로의 안정적인 자금 유입의 통로가 생겼다”며 “여기에 상장폐지 제도 개선 등 통한 시장 신뢰 개선은 외국인·개인 수급 유입에 우호적”이라고 짚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로보어드바이저 자산관리 수요 확대

‘코스콤 테스트베드’, 검증 핵심 인프라로

전체 참여 알고리즘 통과율 약 80%
사전 검증부터 사후 심사까지 수행

로보어드바이저(RA) 기반자산관리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며 알고리즘 검증과 운영 안정성이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알고리즘의 판단이 곧 투자 성과로 이어지는 구조인 만큼, 사전에 검증하는 체계가 중요하다. 국내 로보어드바이저 산업에서는 코스콤 RA 테스트베드가 이러한 검증 인프라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있다.

27일 코스콤 RA 테스트베드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증권 및 자본일임의 RA 계약자 수는 전년 대비 약 4만9000명 증가한 37만4853명으로 집계됐으며, 가입 금액은 약 2500억원 증가한 1조1742억원을 기록했다. 국내 주식시장 호조와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기조 속에서 로보어드바이저 기반 자산관리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RA는 자산배분과 투자 판단을 알고리즘이 수행하는 금융 서비스다. 코스콤 RA 테스트베드는 금융권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의 심사·검증을 담당하는 공식 테스트 인프라로 지난 2016년 도입 이후 국내 RA 시장 운영의 기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알고리즘의 분산투



코스콤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센터 홈페이지.

/코스콤

자 구조, 투자자 성향 분석 반영 여부, 보안 체계 구축 여부 등을 점검하며, 실제 금융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증한다.

2025년 한 해 동안 진행된 정기 심사(24차~26차)에는 36개사, 155개 알고리즘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23개사, 86개 알고리즘이 심사를 통과했다. 누적 기준으로는 145개 회사, 906개 알고리즘이 심사에 참여했고, 116개 회사, 725개 알고리즘이 통과했다. 전체 참여 알고리즘 가운데 통과율은 약 80% 수준이다.

사전 점검뿐만 아니라 사후 관리에도 힘쓰고 있다. 코스콤 RA 테스트베드는 정기운용심사 완료 후 사후운용심사도

수행한다. 사후운용심사는 RA의 신뢰성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3년 6월부터 도입됐으며, 상용화를 위한 필수 절차다.

이는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알고리즘이 기존에 심사받은 규율대로 정상 운용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으로, 참여자가 운용 내역(▲사후운용 리밸런싱 발생내역 ▲사후운용 자가평가서 점검 결과 등)을 제출하면, 코스콤이 실제 거래 내역 등과 비교해 점검한다. 2025년 말 기준 42개 회사, 327개 알고리즘이 사후심사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지난해 국내 RA 알고리즘 평균 수익률은 14.89%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신하은 기자

ACE 금 현물 ETF 순자산 4.6조 돌파

한국투자신탁운용 금 강세 여파

한국투자신탁운용이 만든 국내 최초 금 현물형 상장지수펀드(ETF) ‘ACE KRX금현물 ETF’의 순자산액이 4조 6000억원을 넘어섰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6일 종가 기준 해당 ETF의 순자산액은 4조6467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12일 4조원을 돌파한 이후 불과 10영업일 만에 6000억원 이상 증가한 것이다.

해당 ETF의 성장세는 글로벌 금 가격 강세와 함께 포트폴리오 다변화 수요가 맞물리며 개인투자자 자금이 꾸준히 유입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연초 이후 개인투자자 자금은 단

하루를 제외하고 이어졌으며, 누적 개인순매수액 기준 1404억원이 유입됐다. 올 들어 개인투자자 순매수를 포함한 전체 자금 유입 규모는 3889억원으로, 국내 상장 원자재 ETF 26개 가운데 가장 큰 수준이다.

ACE KRX금현물 ETF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이 2021년 국내 자산운용사가운데 처음 선보인 금 현물형 ETF 상품으로, 한국거래소가 산출 및 발표하는 KRX금현물 지수를 추종한다. 선물형 상품과 달리 월물 교체(롤오버) 비용이나 재간접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서 자산의 70% 한도로 투자할 수 있다.

/허정운 기자 zelkova@

미래에셋證, 자산관리 계좌 모두 ‘10조클럽’

‘쿼드러플 10조 클럽’에 이름 올려

미래에셋증권이 자사 고객 기준 개인연금·DC형 퇴직연금·IRP에 이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잔고까지 각각 10조원을 넘기며, 국내 금융업계 최초로 자산관리 4대 핵심 계좌 모두 ‘10조 클럽’에 올랐다.

미래에셋증권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잔고 10조 원을 넘어서며 국

내 금융업계 최초로 ‘쿼드러플 10조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고 27일 밝혔다.

2024년 10월 개인연금·DC·IRP의잔고가 모두 10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절세투자 대표 상품인 ISA까지 10조원 규모로 성장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앞으로도 통합자산관리 서비스를 고도화해 고객의 평생 자산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허정운 기자